

함평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참가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 '우수상' 수상

"트렌드 분석·콘텐츠 발굴해 관광객 유치 노력"

함평군이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관광자원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함평군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제박람회는 전국 지역축제를 한자리에 모아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축제 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 관련 바이어 및 기업 등과 1대1 상담회도 추진했다.

특히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축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 운영' 성공취업 확산

목포시와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이하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구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는 서해초등학교 앞 토포레스 목포연산점에서 4월 11일 11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된다. 더 많은 구직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구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가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는 목포 산단과 관내 구인기업과 연계해 구직자의 일경험,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비롯해, 구인·구직 정보와 일자리사업 안내 및 면접 준비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머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2회 더 운영할 계획이며, 행사 당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포역 인근 KT빌딩에 위치한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061-801-7788)로 언제든지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는 조선업 취업지원, 농촌일자리, 국민취업지원 사업 연계 등 일자리 관련 종합사업을 수행하는 목포시 취업지원 전문기관이다.

목포=기동채재본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시행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무안군은 오는 28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감시한 가맹점 상품권 환전 명세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및 '당당이득' 전액 환수를 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 도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영암군 도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판식, 정점순)는 6일 도포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정기부금 기탁식(도포면 송의마을 조만성 씨, 1백만원)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복지 계획수립 논의, 2023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밀반찬 지원사업 대상자

30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자 4가구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와상환자 노인부부와 지적장애인 자녀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의 적극적인 동의로 지원을 결정, 4월중 주택 내부와 마당에 산적한 생활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주거·위생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업무협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 계기 마련



신안군은 4월 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조용돈)와 '신안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신안군-한국가스기술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등 관계자 16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안군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 목표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압해읍 농업기술센터 뒤편 압해-송공간 신설도로 인근에 설치될 계획이며, 생산된 수소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는 오프사이트방식으로 구축돼 1일 780kg(버스 40대)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충전소의 운영·안전관리 등 수소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시켜 얻은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순수한 물만 배출해 전기차와 함께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군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올해 무공해차인 수소자동차 3대와 전기자동차 200여대를 구매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신안군이 지속적으로 그린수소 정책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소 승용차 보급뿐 아니라 기존의 신안군 공영버스를 점차적으로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수소대중교통 체계를 갖춰 수소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수소차 이용자들도 방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청정신안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 및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광심체, 투어 첫 출발

11월 25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운영

영광군의 역사·문화·자연 명소와 함께하는 힐링여행인 영광심체투어가 지난 8일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영광심체투어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영광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4월8일부터 11월25일까지 매월 둘째주·넷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첫 투어부터 34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으며, 광주 유스퀘어·송정역을 출발해 무문산행복숲 황토길, 원불교 영산성지, 매간당 고택, 불갑사 등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코스과 프로그램, 영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영광굴비 한정식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설문 결과 대부분이 재방문과 추천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영광심체투어의 첫 출발에는 강종만 영광군수가 참석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였다. 강종만 군수는 "첫 출발부터 투어버스가 가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오늘 투어를 통해 청정 영광의 멋과 맛을 마음껏 누리보시고 매력있는 영광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